

서귀포 수돗물 발견 유충은 '갈따구 유충'

1차 조사서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다음주 나올 듯도, 지난 7월 특별점검 "제주는 전혀 없다" 신뢰 하락

최근 서귀포시 서귀동과 보목동 가정집에서 잇따라 발견된 수돗물 유충이 '갈따구 유충'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서귀포시 일대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을 현미경을 통해 1차 조사한 결과, 갈따구류 유충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330종에 이르는 갈따구류 유충 가운데 정확한 종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유충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다음 주 초쯤 나올 예정이다.

제주에서도 갈따구류 유충이 발견되면서 제주도의 수돗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도는 올해 인천시 등 수도권 수돗물에서 갈따구 유충이 발견되자 도내 17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차례에 걸친 특별점검을 벌였고, 그 결과 "제주에는 갈따구 유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지난 19~20일 서귀포시 일대의 가정집 수돗물에서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르자 현장점검을 통해 유충샘플을 확보해 국립생물자원관에 중 확인을 의뢰하고 이와 함께 삼매

봉 배수지 및 원수지인 강정천과 강정정수장 등에서 유충 유입 여부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였다.

도는 문제가 됐던 삼매봉 배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강정천 취수원과 취수원 상류에서 유충이 서식, 이 유충이 여과시설을 통과한 후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도는 '갈따구 유충 대책' 상황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 환경

부 역학조사반과 함께 현재 유충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이번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 제주도 전역 확산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내 정수장 17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한 강정정수장 유충 확산 방지를 위해 침전지 유출부와 배수지 유입관 전방에 거름망을 설치하고, 여과지 역세척 주기 강화(월 1~2회→매일 1회) 및 배수지 청소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서 더 이상 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날 기준, 제주도상하수도본부에

지난 19일부터 접수된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는 28건이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 대응 사례를 참고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귀포시 수돗물 유충 발생 대응반을 본격 운영 중이다.

대응반은 제주도상하수도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수도지원센터 수처리·생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개 팀 76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유충 발생원인 파악, 공급계통 모니터링, 발생원 차단 등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바람은 차지만 상쾌한 산책 22일 제주시 애월읍 신임리방파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음식폐기물 자체처리시설 렌탈로 전환

제주시, 다량배출사업장 내년 1월 의무화 앞뒤 서귀포시는 감량기 구입비 보조 방식 유지 '대조'

내년 1월부터 영업장 면적 200㎡ 이상·330㎡ 미만 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시설(감량기) 보조방식을 현재 구입비 지원에서 렌탈 지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감량기 구입비 절반을 행정이 보조하는 현재 방식을 내년에도 유지키로 해 두 행정시가 각자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200㎡ 이상 330㎡ 미만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량기 지원사업을 구입비의 50%를 일시 지원하던 민간자본보조

방식에서 렌탈 지원으로 바뀐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모로 선정된 감량기 제작업체들과 음식점들이 계약을 맺어 일정기간 렌탈 사용토록 하고, 시에서 계약기간에 감량기 구입비와 유지관리비를 매월 분할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조율은 50%로 현재와 같다.

이에 따라 시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렌탈 보급사업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한다.

시가 내년부터 대형 음식점의 폐기물 자체처리 의무화를 앞두고 감량기 리스 사업 타당성 용역까지 하

며 지원방식을 바꾼 것은 일시에 감량기 구입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렵고, 입주들도 초기 구입비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또 감량기 설치 후 유지관리와 사후서비스 등 업주들의 불편을 보완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시는 밝혔다.

현재 제주시 소재 200㎡ 이상 330㎡ 미만의 음식점 550여곳 중 감량기를 설치한 곳은 58개소로 10%에 그친다.

시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한 감량기 업체에 대해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면밀히 평가하고 부실업체를 사전 차단해 음식점 업주들이 안심하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량기 설치 업주들이 부담을 호소하는 전기요금도 일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임산물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27·31일 온·오프라인서 판매

제주시는 제주 임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제주시산림조합을 선정하고 2020년 임산물 홍보대전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오후 7시) 제주시산림조합 주관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온라인 임산물 홍보대전 검색)을 통해 생표고, 더덕, 목이버섯, 냉동고사리 등의 청정제주 임산물을 소개하고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또 31일(오전 10시~오후 4시)에는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주차장에서 표고버섯, 고사리, 더덕, 목이버섯, 도라지 등의 임산물을 시중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미세먼지 저감관리 '도민설명회' 연다

26일 주민·전문가 의견 청취 2024년까지 16μg/㎥ 목표 설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기본 방향과 정책을 바탕으로 도 차원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깨끗한 공기, 푸른 하늘, 건강한 제주'를 비전으로

2024년까지 제주지역의 미세먼지 목표 농도를 초미세먼지(PM2.5) 기준 16μg/㎥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도내 제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9μg/㎥이다.

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최근 5년간의 제주지역 미세먼지 농도 변화 및 제주지역의 배출원 분석 결과들을 소개하고, 2024년 목표농도 달성을 비롯해 도내 배출원 관리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자체역량 강화 방안 및 도민 건강보호 등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실천과제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민설명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서귀포의료원 지난해 당기순이익 27억원

지방의료원 절반 17곳 흑자

공공 지방의료원 34곳 중 절반이 지난해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27억원의 흑자를 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34곳(성남의료원 2019년 개원 제외)의 공공 지방의료원의 2019년 당기순이익 산출 결과 17개 지방의료원은 흑자, 17개 지방의료원은 적자로 나타났다.

2019년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지방의료원은 군산의료원(61억)이었으며, 부산의료원(48억), 마산의료원(47억), 삼척의료원(40억), 인천의료원(33억), 원주의료원(33억), 김천

의료원(30억), 서귀포의료원(27억) 등 17곳이 흑자를 기록했다.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정 기능뿐 아니라 신종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거점치료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 35개의 의료원이 운영 중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당기순이익 결과는 지방의료원이 모두 적자일 것이라는 오해와 우려를 해소시킨다"면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이 적절한 위치에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6차산업 박람회&컨퍼런스 전시관·수출 상담회 등 운영

제주의 지속가능한 6차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6일부터 12월 5일까지 30일간 '제2회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컨퍼런스'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온라인 전시관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6차산업은 1차, 2차, 3차산업을 복합한 산업으로 농산물에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행사는 '지속가능한 6차산업, 코로나19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국내외 80여개 기관·경영체가 참여한다.

또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6차산업 제품을 선보이는 전시관 운영, 6차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컨퍼런스, 해외 바이어와의 온라인 수출 상담회, 세미나 등이 이뤄진다.

관련 내용은 박람회 홈페이지(<http://farmingplusjeju.com>)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관람 및 참여할 수 있다. 이태윤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농업인이자면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감귤·만감 농가

양배추·브로콜리·마늘·감자·당근

당도를 올리기 위해 10월초부터 3~4일 간격
해피한그린 3병 + 글루칼2포를 1,000ℓ(50말)에 3번 연면시비

※ 파종이 늦은 농가는
잘커진액 5ℓ + 썬파고 8ℓ + 살충제 2,000ℓ(100말)에 살포

※ 찬바람이 불기전(10월 중·하순)
희토락F 5ℓ + 썬파고 8ℓ + V패스 4ℓ + 살충제 2,000ℓ(100말)에 살포

→ 양배추, 프로콜리는 불병·뿌리혹병 예방, 감자는 시들음병 예방

제품 소개

- **해피한 그린** : 희토류가 들어 있어 당 상승 효과
- **글루칼** : 글루콘산이 99.9% 들어있는 포도당 칼슘
- **썬파고** : 제독처리된 나노유황과 콜라겐으로 만든 균 예방제 (무름병, 흰가루병, 노균병, 탄저병, 녹병 등)
- **V패스** : 희토류와 양자에너지로 합성된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제 (양배추 불병, 뿌리혹병, 밀싹음병 등)
- **잘커진액** : 동물성 아미노산으로 만든 영양제로 흡수율이 87~88%나 되는 영양생장 촉진제
- **희토락F** : 희토류와 부식산 및 철분이 들어있는 비대축진제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